

『韓国語教育研究』(第1号)別刷

ISSN 2186-2044

【特集】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김성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1年9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김 성란

1. 서론

중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문화교류를 해 왔으며 서로의 언어를 배워왔다.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등 노걸대 류 역학서들은 고려 말부터 조선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사용된 중국어 회화 학습 교재이다. 또한 <계림유사>, <조선관역어> 등 문헌은 일찍 송나라 때부터 중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워왔음을 증명하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된다.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대학 내에서 학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46 년 북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¹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65 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40 년대부터 1980 년대말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한국어 전문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북경대학교(1946 년), 대외경제무역대학교(1951 년), 낙양외국어대학교(1956 년), 연변대학교(1972 년), 북경제 2 외국어대학교(1972 년) 등 5 개 대학에서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한국어 교육자와 학습자의 규모가 아주 작았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1992 년 중한 수교 이후부터이다. 중한 수교 이후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 1990 년대 중후반부터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¹ 안병호(2000)에서는 북경대학은 1946 년부터 한국어과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양성하였으며 그 당시 사용한 교과서 명칭은 바로 ‘한국어’로 대학 교수들이 자체로 편찬하여 사용하였고,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면서 북경대학의 한국어과는 그 명칭이 조선어과로 개칭되어 국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 명칭을 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수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젊은 층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내 대학들에서 한국어학과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90 년 이전의 5 개 대학에서 1990 년대 말까지 20 여개 대학들에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었고, 2000 년대 중반까지는 50 여개 대학들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었다.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에서 2009 년에 진행한 “전국 한국어학과 실태조사 보고” 에 의하면 2009 년까지 4 년제 본과 대학에 설립된 한국어학과는 98 개이다.

한국어학과의 지역적인 분포를 볼 때 90 년대 초반에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연해지방 예를 들면 대련, 위해, 청도 등 도시들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는 중국내지쪽,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대학들에서도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었다. 현재 중국 북쪽의 흑룡강성으로부터 남쪽의 광둥성과 운남성, 서쪽으로 중경시 등 중국 전 지역에 걸쳐 한국어 학과가 대학들에 설치되었다. 현재 중국 내 한국어학과는 4 년제의 대학 본과 과정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설치하여 고급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본고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학습자와 교수진, 교과과정, 교재, 한국어 교육에서 존재하는 문제점 등 4 개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정규 본과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진행되는 학력 교육과 학원같은 사설기관에서 진행되는 비학력 교육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정규대학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2. 한국어 학습자와 교수진 현황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조선족 학습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조선족 외의 타민족 학습자들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므로 모국어로 배우는 조선족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중국에서는 정치, 외교 등 분야의 소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몇 개의 대학들에서만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므로 한국어 학습자가 아주 적었다. 이때는 중국이 계획경제 시기에 처할 때였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거의 100%로가 졸업후 국가의 통일배치에 따라 외교부, 문화부, 경제무역부, 교육부 등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중한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한국어 전문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한국어 전문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중국에서 한국어 학구 열의를 일으켰다. 중국에서 한국어학과가 90년대부터 대폭 개설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서이다. 이에 또 90년대 중, 후반부터 중국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의 열풍으로 많은 10대 중후반들이 단순히 어떤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해서, 또는 어떤 드라마의 영향으로 호기심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워보려고 하는 비학력 교육 학습자들도 많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워주는 사설학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겼다. 북경에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문화원이 있다. 한국 문화원에서는 무료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회 온라인으로 학생모집을 시작할 때마다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신청자가 금방 만원이 된다고 한다.

중국의 정규 대학에서의 한국어 학과 학생 모집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매년 20명 좌우의 한국어 학과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²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은 주로 4년간의 본과 학습과정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졸업한 후에는 중한 양국의 외교, 경제, 무역, 문화 교류, 관광 등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오늘날의 시대는 시장경제 규칙에 맞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² 허련화(2010)에 의하면 2010년 7월까지 본과 재학생 수는 21,862명이고, 강은국(2010)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까지 재학생 수가 23,130명이다.

양성해야 한다. 특히 21 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이 WTO 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중국내에서 한국어 인재에 대하여 양적인 수요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고급인재, 한국어는 필수적으로 잘 하되, 다른 방면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복합형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만 하여도 한국어만 잘하면 한국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대는 지금은 사라졌다. 각 대학들의 한국어 학과들에서는 요즘 자체의 특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도 바로 오늘날 현실 요구하는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그 실례로 대련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전공하는 복수전공 제도를 실시하여 국제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취직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비하여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진로를 선택한다. 중앙민족대학교의 경우 2008 년 27 명의 졸업생 중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8 명이다. 그 중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6 명이고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2 명이다. 2010 년 25 명의 졸업생 중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6 명이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1 명이다. 현재 중국내 많은 대학의 한국어학과들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한국어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도 고학력, 고급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의 부응이라 하겠다.

다음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진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진은 대부분이 중국 내의 중국인 교수들이고 소수의 한국에서 파견되어 온 한국인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 교수들은 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조선족 교수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족 교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어학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90 년대 초, 중반에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때의 한국어학과의 교수는 60, 70 년대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해 온 원로 교수들과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강사들로 나눌 수가 있다. 젊은 층 강사들 중에는 연변대학교나 중앙민족대학교의 조선어과를 졸업한 학사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때의 교수진은 한국어 연구에 대한 부족, 교수법에 대한 무경험 등의 원인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노출되었었다.

한국어 교수가 부족함에 따라 많은 한국어학과들에서 한국인 초빙 강사들도 채용하지만 적지 않은 강사들이 중국어에 대한 미숙달, 또 중국문화에 대한 열은 이해로 한국어 강의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어의 언어나 문학을 전공한 석,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수가 턱없이 부족하던 상황은 좀 완화가 되었다. 현재 북경 같은 경우는 필요한 교수진을 거의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갓 설립된 한국어학과나 대도시에 소재해 있지 않은 대학의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국어 교수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에서 2009 년에 진행한 “전국 한국어학과 실태조사 보고” 에 근거하여 강은국(2010)에서 통계한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중국의 교수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 한국어학과 교수진의 직함 현황

직함	인구	비례
교수, 부교수	159	26%
강사	257	42%
조교	197	32%
합계	613	100%

[표 2] 중국 한국어학과 교수진의 학력 상황

학위	인수	비례
박사	121	20%
석사	313	51%
학사	179	29%
합계	613	100%

[표 1]과 [표 2]의 수치를 보면 현재 중국 교수진의 경우 부교수 이상

직함에 비하여 조교의 직함 비례가 너무 높다.³ 그리고 학력 상황에서도 학사의 비례도 너무 높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학과 교수들의 학력이 너무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국 내의 한국어 학과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교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내에서는 2002 년부터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학회의 주최로 해마다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대형 한국어 교육 학술 대회가 개최된다. 이때에는 중국의 원로 한국어 교수들도 참석을 하게 되고, 한국의 유명 한국어교육 전문가들과 교육자들도 참석을 하여, 젊은 한국어 교수들한테는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유익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학회는 2003 년부터 한국국제 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젊은 학자들에게 한국 경희 대학교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김병운, 2007 년)

3. 한국어학과 교과과정

중국에서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은 해당 대학, 학과의 교육목표에 따라 차별화된다. 하지만 대학에서 4 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역과 번역 등의 기능을 갖춘 한국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공동목표 외에 각 대학들에서는 자체의 지리적 위치, 특수 목표 등에 따라 자기 실정에 맞게 교과과정을 정하고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앙민족 대학교의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북경에 소재해 있는 4 개 대학⁴의 교과과정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용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앙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는 4 년간의 대학본과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³ 중국 대학에서의 직함은 한국과 좀 다를 수 있다. 보통 조교, 강사, 부교수, 교수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대학에 갓 부임되면 직함이 보통 조교부터 시작이 된다.

⁴ 현재 북경에는 북경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 북경제 2 외국어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북경어언문화대학교, 북경공업대학교, 북경전매대학교, 북경연합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등 9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매년 2 개 학기로 나뉘며 한 학기에 보통 18 주간의 강의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 대부분의 한국어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앙민족대학교의 현행 교과과정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실천과목 등 3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총 3780시간에 147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표 3] 한국어학과 교과과정 학점 배분표

교과과정	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72 학점	
		교양필수과목: 23 학점	
	선택과목	전공선택과목: 24 학점	
		교양선택과목: 14 학점	
	실천과목	논문	학년논문: 1 학점
			졸업논문: 6 학점
		졸업실습: 2 학점	
		사회실천 및 기타: 5 학점	

[표 3]에서의 전공필수과목에는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들로서 종합한국어, 한국어회화, 한국어듣기, 한국어쓰기, 한국어읽기, 고급한국어, 중한번역, 한중번역, 한국문학, 제 2 외국어(영어)등의 과목들이 배정되어 있다.

교양필수과목은 한국어학과의 학생뿐만 아니라 영어나 경제 등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들로서 컴퓨터문화기초(이론, 실천), 체육, 사상품덕수양과 법률기초, 중국근대사강요, 맑스주의기본원리,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이론, 민족이론과 민족정책 등의 과목들이 배정되어 있다. 어떤 대학들에서나 꼭 이수해야 할 교양필수과목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중앙민족대학교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전공선택과목은 한국어학과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으로 주로 3 학년, 4 학년 등 고학년에 배정되어 있는데 한국개황, 한국문화, 한국어문법, 한국어어휘론, 무역한국어, 신문한국어, 한국문학사, 한국어시청설,

한국기업문화, 한중문화비교 등의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교양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또는 목표에 따라 역사, 언어, 인문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등 다른 분야의 지식들에 대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음은 북경 소재 5 개 대학의 한국어 학과의 한국어 관련 과목에 한하여 교과과정을 비교, 고찰해 보겠다.⁵

[표 4]를 보면 공통점으로 필수 전공 과목 중에 시리즈로 된 한국어 기초교육 과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다름에 따라 종합한국어, 기초한국어, 한국어정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한국어 기초교육 과정에 속하는데 한국어의 발음, 상용어휘와 기본 문법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 한국어의 통합과목으로서 한국어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매주 강의시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게는 6 시간, 많게는 14 시간이다.

이 외에 공통점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능별 능력신장을 위한 한국어말하기, 한국어시청설, 한국어쓰기, 한국어읽기 등 과목들이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한국어개황이 필수전공과목 또는 선택전공과목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민속, 예술, 습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개황 과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중, 중한번역 과목도 대부분의 대학들에 설치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동일한 4 년제 대학들이지만 대학마다 교육목표가 다름에 따라 특색있는 교과목들을 설치하기도 한다. [표 4]를 보면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에 경제무역 응용문, 경제무역담판(朝, 韓), 경제무역문장 선독(朝, 韓) 등 경제무역과 관련 된 특색있는 과목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된 점 으로서 이 대학에서는 대외무역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목표로 하고 있다는 일면을 볼 수가 있다. 북경공업대학에서도 전공필수과목 중에 과학기술 한국어를 시리즈로 설치해 놓았는데 이도 해당 대학교의 특색에 맞게 개설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다.

⁵ [표 4]에서의 5 개 대학의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은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발췌하여 본인이 번역한 것이다.

[표 4] 5개 대학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대조

대학교	교과과정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중앙민족대학교	종합한국어 (1-4) ,한국어말하기 (1-4) ,한국어듣기 (1-4) , 한국어읽기 (1-3) ,한국어쓰기 (1-3) ,고급한국어 (1-2) ,한국문학 (1-2) ,한중번역,중한번역, 한국어통역	한국개황,한국문화,한국어문법,한국어어휘론,한국어시청설(1-2),한국기업문화,무역한국어,신문한국어,한중문화비교,한국문학사
북경대학교	기초한국(조선)어 (1-4) ,기초한국(조선)어시청설 (1-4) ,고급한국(조선)어 (1-4) ,한국(조선)문화,한중번역, 중한번역	조선반도개황,한국(조선)어응용문쓰기,한국(조선)어신문선독(상,하),한국(조선)문학간사(상,하),고급한국(조선)어말하기(1-2),한국(조선)어문법,한국(조선)경제,한국(조선)문학작품선독(상,하),한국(조선)민속,한국(조선)철학,한국(조선)언어학개론
북경외국어대학교	한국어발음,한국어정독(1-3),한국어말하기,한국어듣기,한국어통역,한국어번역,한국어쓰기,한국어시청설,한국어신문읽기,한국개황,한국국정문화,한국문학선독	한국고전문학,한국현대문학,한국문화,한국언어학,한국경제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기초조선(한국)어(1-4),시청설(朝, 韓) (1-4) , 조선(한국)어정독,조선(한국)어쓰기,경제무역응용문,문학선독,번역이론과실천(朝译汉), 번역이론과실천(汉译朝),경제무역담판(朝, 韓), 경제무역문장선독(朝, 韓)	조선(한국)어말하기,조선(한국)어읽기(1-3),조선(한국)어문법,조선/한국개황(朝, 韓) , 통역(朝, 韓) ,시청설(朝, 韓) (5-6),신문선독(朝, 韓)

북경공업 대학교	기초한국어(1-4), 한국어말하기(1-2), 한국어듣기(1-2), 과학기술한국어(1-3), 한국어시청설	무역한국어말하기, 마케팅한국어말하기, 한국어읽기훈련, 한국어말하기실습, 번역이론과실천(1-2), 한국어응용문쓰기, 통역훈련
-------------	---	--

4.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외국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재다. 그러나 중국실정에 알맞고 해당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이 되는 교재를 편찬하기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중국 내 한국어학과 교수들은 일찍 1946 년 첫 한국어학과가 창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실에 알맞는 교재편찬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60 년대에는 출판된 교재가 없었고 자체로 교재를 만들어 쓰다가 70 년대부터는 출판된 한국어 교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순녀(2003)에 의하면 북경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공동 편찬한 『조선말기초』가 1975 년에 비공개 출판되었으며, 1972 년부터 1974 에 걸쳐 『조선어』(2~5)가 비공개 출판되었다. 80 년대에 들어서서는 허동진의 『조선어자습독본』(1980 년)과 이득춘·김상원(1983 년)의 『조선어 방송강좌』(1-3)가 연변 인민출판사에서 공개 출판되었다. 1992 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80 년대 말까지는 “한국어”란 교재명칭보다는 “조선어”란 교재 명칭을 썼다. 90 년대부터는 “한국어”란 명칭이 들어간 교재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강신도(1991~1993 년)의 『기초한국어』가 1 권부터 4 권까지 시리즈로 출판되었으며, 1996 년도에는 북경대학교 등 25 개 대학의 공동 편찬으로 된 『표준한국어』가 출판되었다. 이 외에도 90 년대 중국 내에서 많이 사용된 교재로 이득춘의 『초급조선어』(1992 년), 김상원·박태영의 『중급조선어』를 손꼽을 수가 있다.

2000 년도 초반에 와서는 북경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어학과들에서 북경대학교의 이선한 등이 편찬한 『한국어』(1~4)를 썼으며 현재까지도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이 외에 연변대학교의 최희수 등이 편찬한 『초급한국어』(상, 하), 『중급한국어』(상, 하), 『고급한국어』(상, 하)가 산동지역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사용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많은 대학들에서 자체로 교재를 편찬하여 출판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어 교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만 하여도 수백 종에 달한다. 지금은 한국어 기초 교육 교재를 선택하려면 출판되어 있는 교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교재가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간 옛말이다.

중국에서의 교재사용은 이상에서 언급한 중국 내의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교재 외에 또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어학과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90년대에는 한국어 교재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중국 내에서 출판된 교재는 주로 초급 단계의 교재로서 중급, 고급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성을 가진 교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90년대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의 연세대 등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편찬한 교재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대학교가 많았다. 현재에는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많은 한국 교육기관들의 교재가 중국에서 번역, 재출판 되었는데 이런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교도 적지 않다. 한국어서 출판된 교재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생동감 있게 배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가 아니고 또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어학과 전공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전문성, 실용성이 떨어지고, 중국문화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으며, 또 중국 내 한국어 학과의 교육목표, 교과과정에 의거하여 편찬한 교재가 아니므로 현실성도 부족하다.

5.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시간적으로 보면 194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반세기가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의

진정한 한국어 교육은 1992년 중한수교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김석기(2005)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 단계를 제 1기(준비기, 1946-1971년), 제 2기(도약기, 1972-1992년), 제 3기(발전기, 1993-1999년), 제 4기(성장기, 2000년-현재)로 나누었고, 노금송(2009)에서는 1단계(준비기, 1940년 중반-1992년), 2단계(발전기, 1993년-20년대 초), 3단계(성장기, 20년대 초-현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사실 80년대 말까지의 한국어는 몇 개의 대학교에서 극소수의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으므로 노금송(2009)에서처럼 이 1992년 전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그야말로 준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에서의 진정한 한국어 교육은 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역사가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다. 이는 영어나 노어, 일본어 등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외국어에 비하여 교육 역사도 짧고 연구도 깊지 않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한국어 학과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교수나, 교재, 교과과정 등 많은 면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물론 한국어학과가 좀 일찍 개설된 대학들에서는 설립 당시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여 현재에는 한국어 교육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어 학과가 새로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한국어 교육이 중국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과정에서의 문제점이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이 비슷하고 뚜렷한 특색이 없다. 각 대학의 한국어 학과는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독창성 있고, 특색이 있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지만 그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관건인 교과과정은 독창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대부분 대학들의 교과과정이 언어 교육을 위주로 하는 언어 교육 중심 교과과정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어만 잘해서는 취업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에서 실업자가 되기 쉽다. 현재 사회는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아 법률, 경제, 경영, 무역, 언론, 관광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할 수 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한국어 학과의 졸업생들이 졸업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무역, 경영, 외교 등의 전공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사회가 이러한 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과의 교과과정도 이제는 개혁을 해야 한다. 단순 언어 과목 위주의 교과과정보다도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동시에 능통할 수 있는 교과과정, 또는 한국어에 기타 전문지식이 합쳐진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즉 복수전공제도를 실시하여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 나름대로의 특색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차별화된 교과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최남쪽 성인 광둥성에 위치해 있는 대학의 한국어학과와 중국 최북쪽 성인 흑룡강성에 위치해 있는 한국어 학과의 교과과정이 비슷하다면 지역적인 우세를 발휘할 수가 없다. 광둥성의 경우 한국어뿐만 아니라 광둥성의 지역언어인 월어까지 능통한 한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 지역의 중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가 많은 흑룡강성의 경우 노어를 잘하는 한국어 학과 인재를 육성한다면 충분히 지역적인 우세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김병환(2008)에서는 북경, 상해 등 대도시와 동부 지역에서 양성한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이 서남지역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 막상 왔다고 하더라도 알아듣기 힘든 서남지역 사투리와 복잡한 서남지역의 경제, 문화 상황에 익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현지 상황에 익숙한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을 여러 분야에서 수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만들어 지역문화에 익숙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교수의 자질문제이다.

한국어학과의 급증하던 시기인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어 교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실제로 한국어 전공 지식에 대한 충분한 능력검증을 거치지 않은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거 투입되었다. 따라서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또 한국어 교육 방법과 이론에 대해서도 미숙한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들이 많았다. 한국어 교육 경험이 적고, 고직함 교수들이 적고, 학력이 낮은 것은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과의 교수들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교수자질 문제점에 관련하여 박영환(2007)에서는 중국에서도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한국어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고,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국가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중국어 교사 자격증 시험에 통과되어야 교단에 설 수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교수 자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학과에 한국어와 관련된 전공지식 외에 무역이나, 경제, 관광 등 분야의 전공지식을 갖추고 이를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아주 부족하다. 한국어학과에서 1,2 학년 때에 한국어 기초전공지식을 배운 후 3,4 학년에 올라가서 각 대학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무역한국어나, 관광한국어 등 특설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아주 부족하다.

셋째, 교재 사용에서의 문제점이다.

2000 년도에 들어와서 각 대학들에서 너도나도 자체로 교재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통합형 초급교재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초급, 중급, 고급 체계를 이룬 교재는 아주 적다. 특히 한국어학과 3, 4 학년 등 고학년에서 사용할 고급 통합교재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초, 중급은 중국 학자들이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고급은 한국 학자들이 만든 교재를 사용하다 보니 한국어 교육에서 체계가 깨어지고 균형이 흐트러진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어 쓰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시청설 등 전공 필수 과목 교재가 아주 모자라는 상황이며, 한국어 문법, 한국어 어휘 등 과목도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교사는 물론 학습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재 사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초급, 중급, 고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어휘와 문법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교들에서 편찬된 교재를 비교해보면 통일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통합교재 개발에만 주력을 하다보니 통합교재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재와의 균형이 깨어져서 각 과목들사이의 연결이 참으로 어렵다. 각 대학마다 교육목표가 다르지만 앞선 교과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학년에서의 한국어 기초교육은 각 대학마다 비슷하므로 교재를 공동 개발하여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학회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공동교재를 개발하고 있지만 인력집중, 시간, 경비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공동교재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재에서의 문법술어의 비통일성도 큰 문제점이다. 여기서의 비통일성이란 주로 하나의 한국어 문법술어에 대하여 다양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조사 같은 경우, 중국어로 “助词”라고 번역한 교재가 있는가 하면 “词缀”라고 번역한 교재도 있다. 이와 같은 문법용어의 번역상의 불일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편함을 초래한다.

중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교재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최희수(2005)에서 제기한 것처럼 교재편집에서 합리성 원칙, 실용성 원칙, 과학성 원칙, 체계성 원칙, 취미성 원칙을 지키면서 한국어 교재 편찬에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참답게 검토하고 보다 훌륭한 교재 편집의 새로운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탐색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의 평가 기준 문제이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통일적인 평가체계와 기준이 없다. 물론 1998년부터 한국어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 학습자들의 능력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평가에 있어서 “한국어능력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검증 외에 번역과 통역 능력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 응시

장소도 불편하다. 처음에는 북경, 연변 등 몇 개 도시에서만 진행이 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지금은 29 개 도시에서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장소가 개설이 되지 않은 도시에 소재해 있는 한국어 학과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을 치르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그리고 매회 시험 응시 비용이 인민폐 300 원인데 이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결코 싸지 않다. 중국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중국 교육부에서 진행이 되는 전공 영어 시험이 있다. 응시비용도 싸고 대학 내에서 쉽게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어도 중국 교육부의 지지를 얻어 중국내에서 전공 한국어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언제 정식으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학습자 및 교수진, 교과과정, 교재, 한국어 교육에서 존재하는 문제점 등 면에서 살펴보았다. 워낙 폭이 넓은 주제라 하나의 책으로 다룰 만한 내용을 말 타고 꽃구경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불어난 한국어학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과열 상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매년마다 늘어나는 졸업생들의 취직을 과연 100% 보장할 수 있는가, 한국어학과가 정말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졸업생들을 배양하고 있는가, 졸업생들이 과연 사회에서 한국어 학과의 전공자로서 제 노릇을 하고 있는가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사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제는 양적인 면에서의 증가보다는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이 중요하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가 중국에서 제 1 외국어인 영어처럼 튼튼하게 자리 잡고 건강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은국(2010), 대학교 본과 외국어 비통용 어종 학과 규범의 측면에서 본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조선)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김경선(2005),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제 3 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민족출판사.
- 김병운(2007),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중한수교 15 주년기념 2007 년 연례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병환(2008), 중국 서남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세계 속의 한국(조선)학 연구 국제학술토론회 언어·문학 논문집.
- 김석기(2005),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실태 및 연구 현황, 황해권 한중 교류의 역사 현황과 미래, 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 김순녀(2003),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과제, 선청어문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노금송(2009), 중국 북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제 23 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묘춘매(2002),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국어교육연구 제 10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영환(2007),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효율적 방안, 한국언어문학 제 60 집, 한국언어문학회.
- 최희수(2005),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제 30 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안병호(2000), 중국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실태와 그 개발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태학사.
- 허련화(2010),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한국(조선)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중앙민족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부교수)

韓国語教育研究 創刊号 (第1号)

201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姜 奉植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61-853 東京都新宿区中落合4-31-1

目白大学外国語学部韓国語学科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金鉉哲・李善姫・宋貞熹・柳朱燕

印刷所 (株)ENTERPIA PRODUCTION